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3.9.18.(월) 조간	배포	2023.9.15.(금)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 국제협력팀	책임자 담당자	국 장 이준교 (02-3145-7890) 팀 장 임재동 (02-3145-7892)

이복현 원장, 도이치은행 본사 방문 및 글로벌 경영진 면담 - 한국 투자 확대 결정에 대한 환영 및 새로운 도약을 기대 -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3.9.15.(금)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람 나약(Ram Nayak)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의 면담을 실시
 -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 5,000만유로(2,115억원)의 자본금 증자 결정을 설명하였고,
 - 이러한 한국 투자 확대는 ①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, ②한국 경제·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및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③도이치은행의 對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음
- 이복현 원장은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음
 -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최고 은행중 하나인 도이치은행의 금번 증자 결정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였고,
 - 이번 증자 결정이 글로벌 금융회사 및 해외투자자의 한국 금융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틔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음

- 특히, 이복현 원장은 올해로 한국 진출 45주년을 맞이하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
 - 도이치은행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- 한편, 이복현 원장은 도이치은행 글로벌 경영진과 한국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및 글로벌 경제·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
 -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 대한 평가를 경청하였고,
 - 글로벌 금리 인상, 고물가 및 부동산 리스크 등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지만, 한국 금융시장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